



# 인터넷이 쌓아올리는 견고한 탑

인터넷 경매사이트 '옥션' 과 '와와컴' 의 광고

마정미 | 광고평론가

최근 인터넷 경매 사이트 광고가 잇따라 텔레비전에 나오고 있다. 이는 인터넷 기업들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적절한 사례다.

갖가지 미래서들이 일찍이 말해왔던 정보사회로의 재편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네온사인인 번쩍이는 밤시간의 테헤란로를 지나 노라면 공중에 부유하는 무수한 이름들을 볼 수 있다. 닷컴(.com)의 물결로 이어지는 인터넷 기업들의 도메인 네임이다. 빈자의 주소일수록 빈 지수가 길다는 어느 시인의 시구처럼 사이버세계의 주소도 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주소가 짧다.

## 성장가도에 들어선 경매사이트

그 많은 간판 중에 '(주)미래와사람'의 문패가 눈에 띈다. www.auction.co.kr이라는 도메인 주소가 네온으로 번쩍이고 있고, 그 옆에는 인터넷에서 마우스를 클릭할 때 나타나는 손바닥 아이콘이 점멸한다. 알다시피 '옥션'은 인터넷 경매의 선두주자다. 축구해설가 신문선씨의 경매 혈전이 펼쳐지는 CF로도 유명하다. 흡사 전자오락 '스트리트파이터'의 무술시합장 같은 배경에서 거구의 상대가 "천원 더"를 외치며 주먹을 날려 오면 사뿐히 피한 신씨가 "2천원 더" 하면서 멋진 돌려차기로 상대방을 KO시킨다. 뒤이어 "만원 더"라는 외침과 함께 등장하는 여성 무사와 대적, "만원에 천원 더"를 외치며 장풍으로 압승, 노트북을 쟁취한다는 내용이다.

또다른 경매사이트 와와(www.waawaa.com)의 CF 또한 재미있다. '드라마가 있는 홈페이지'라는 컨셉으로 영화감독 지망생, 카피라이터, 패션모델 등을 모델로 내세웠다. 16mm형 카메라를 매물로 내놓고 영화감독이 되고 싶었던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끼는 스노우보드나 오토바이 할리 데이비드슨 등을 비롯, '헤어진 그놈이 준 반지'도 팔겠다고 내놓는다. 자극

《제2미디어 시대》  
마크 포스터 지음/이미옥·김준기 옮김  
민음사/A5신/256면/10,000원  
《웹경제학》  
에반 I. 슈워츠 지음/고주미·강병태 옮김  
새종서적/A5신/296면/10,000원

적인 카피지만 '잘 가라 칸느야' '잘 가라 할리야' '잘 가라 바람둥이'라는 멘트에 이르면 아끼는 물건과의 이별, 그리고 새출발의 각오가 전해지는 짙한 광고다.

초창기 지하철 광고로 시작한 이들 기업들이 과감하게 TV CF에까지 진출하는 것은 그만큼 사업이 확장일로에 있기 때문이다. 무섭게 늘어나고 있는 경매 사이트는 인터넷의 상호작용을 잘 활용한 사업이다.

이런 사이트에는 서적·음반·전자제품·자동차·골동품·예술품 등 엄청난 종류의 경매 물건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고 팔려 간다. 경쟁을 통해서, 파는 사람은 자신이 아끼던 물건을 적정한 사용가치를 받고 팔 수 있고, 사는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싼값에 구할 수 있다. 중고물품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자발적인 리사이클링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 유연하게 해체하며 진화하는 인터넷

인터넷 기업들의 성공을 보면 갖가지 미래서들에서 보던 정보사회로의 재편이 헛말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벨탑처럼 놀라운 속도로 건설되고 있는 인터넷 산업은, 바벨탑과 달리 언어와 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하기에 공고한 탑이다. 더구나 유연하게 해체하고 병

합하면서 진화한다. 명실공히 '디지털 진화'다. 에반 슈워츠의 《웹경제학》(새종서적)과 《디지털 다윈이즘》(새종서적)은 이런 인터넷 기업들의 적자생존과 생존전략을 다룬 책이다. 변화하는 환경에 끊임없이 적응하지 않으면 멸종하고, 새로운 기술과 속성을 개발하지 않으면 버릴 수 없다는 것. 현재 진화론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로 그는 검색관련분야, 즉 포털사이트를 꼽고 있다.

어쨌든 정보사회에 대한 우려나 보드리야르식의 염세적 포스트모더니즘을 가볍게 밀치고, 인터넷 세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며 계속 진화하고 있다. 마크 포스터가 《뉴미디어의 철학》(민음사)과 《제2미디어 시대》(민음사)에서 말했듯, 정보기술과 전자매체정보의 확산은 '사회적 관계의 연결망'을 변화시킴으로써 우리들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인터넷은 이제 생활방식이 돼가고 있다. 제2미디어의 특성은 정보 소비자가 정보 생산자의 지위를 동시에 누린다는 것이다. 네티즌의 탈중심주의적 주체 의식과 자율성 또한 이 점에서 기대될 수 있다.●